

바람 잘 날 없는 쿠팡... PB 우선 노출 등 판매방식 '도마위'

공정위, 쿠팡 검색조작 등 조사
납품업체 갑질 의혹도 정조준
판매자·소비자 등 여론 부글부글



서울 쿠팡 서초1캠프 앞에서 한 배송원이 트럭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

쿠팡이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에 이어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이츠 갑질 논란, 열악한 노동환경, 불공정한 판매방식까지 얹힌 데 덮친 격의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사우대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이 노출되게 하고, 그 외 납품업체 상품들을 하단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가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골자다.

또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

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납품업체를 향한 보복 행위는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로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낸 바 있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싸고 평가가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 상세정보나 리뷰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조사나 제품의 품질이 다른 상품도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후발 판매자가 기존 판매자보다 가격을 낮추며 가격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판매자들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이한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일부 소수 케이스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상품 정보를 입력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승승장구해왔다. 매출은 2015년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13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3%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판매자와 소비자들간의 원성을 사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서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라며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노동자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판매자들과의 상생이 중요한데, 우수 판매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도 덩달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항공업계 '화물'에 희비... FSC 😊 LCC 😞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

2분기에도 항공업계 경영난 지속
LCC, 국내선 호조에도 적자 전망
대형항공사, '화물'로 연이어 흑자

항공 업계에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지만, 올해 2분기에는 화물 사업을 두고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간 희비 교차가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는 올해 2분기에도 여전히 경영난을 이어갈 전망이다. 백신 접종자가 늘고,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통한 국제선 재개 기대감에도 업황이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차 접종자는 누적 1534만 7천여 명으로 전 국민의 1차 접종률은 29.9%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531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0.4%가 예방접종을 마쳤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트래블 버블 시행도 준비 중이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 방역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인의 여행 목적으로 국제선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관과 첫 트래블 버블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의 업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는 글로벌 항공 여객수가 2022년이 돼야 코로나 전인 2019년의 88%까지 돌아오리라 전망했다.

또, 2023년에는 2019년의 10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연내 항공사들이 여객 사업만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특히 LCC(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의 호조세에도 화물 사업의 부재로 인해 2분기 적자 지속이 전망된다. 국토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선 이용 여객수는 314만1565명으로 전년 동기 190만3446명 대비 외려 65%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에 해외여행을 못가자 국내선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국내선 수요 증가에도 LCC는 흑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항공사는 대부분 수익을 국제선에서 내기 때문이다. 또, 화물 수송 사업을 하고 있는 FSC(대형항공사)와 달리 LCC는 화물 전용기도 없어 사실상 코로나 해소 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LCC 가운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일부 화물 노선을 운영 중이다. 하지

만 FSC처럼 화물 전용기가 아닌 여객기를 활용해 적재 공간이 비교적 적어 수익이 적자를 만회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올 2분기 영업손실 803억 원이 추정된다.

반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연이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은 코로나 여파에도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는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82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1,102억 원 대비 약 25.2%로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실제 항공 화물 수송 시장의 물동량도 줄곧 확대되고 있다. 항공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적사가 수송한 화물은 총 21만4853톤으로 전년 동기 17만5682톤 대비 약 22% 늘었다.

또, 화물 운임의 상승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홍콩-북미 노선의 항공 화물운임(TAC 항공운임지수 기준)은 kg당 5.48달러로 전년 동기(4.03달러)보다 1.45달러 상승했다. 화물 공급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FSC가 2분기에도 흑자를 낼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선적 준비중인 뉴 아르카나.

현대차 내일 파업 찬반투표 '이번주 분수령'

▶▶ 1면 '반도체 부족'서 계속

강관 원재료인 국제 철광석 가격 급등에도 기업 간 양보를 통해 가격 동결을 이어온 지 4년 만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후폭풍이 완성차 업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노사가 제13차 임단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따른 결과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최장 만64세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급 100%+300만원 지급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 큰 결단이 부족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오는 7일 진행되는 투표에서 찬성으

로 결정날 경우 현대차는 본격적으로 파업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노조의 파업으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일부터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5일 마무리 짓고 바로 개표 작업에 돌입했다. 6일에는 확대간부협동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임단협 내용을 두고 아직도 노사 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오는 9일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르노삼성자치회, 새미래노조, 영업서비스노조 등 4개 노조 중 교섭 대표를 확정하고, 12일 임시 총대의 원대회를 개최해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사측이 지난 5월 부분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며 노조의 태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올해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직 올해 임단협에도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르노삼성의 경우 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대란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수출 물량 생산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정보보호관리체계 발급에만 낙담... "신고 실효성 낮아"

▶▶ 1면 '美·英 등 바이낸스'서 계속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필수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발급에 통상 적어도 4개월가량 소요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도 획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다.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는 오히려 특검법 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오비의 국

내 법인인 후오비코리아는 ISMS인증을 이미 지난 1월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금지하자 지난달 자체 발행 코인인 '후오비 토큰(HT)' 상장폐지를 결정하

바 있다. /이영석기자 ysl@